

광주시민 절반, 아파트 추가 공급에 부정적

광주시의회 주거정책 여론조사...반대 49.2%, 찬성 38.2% 고층 층수 제한 찬성 58%...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가장 선호

광주시민 절반은 향후 아파트 공급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시의회가 실시한 주거정책 관련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아파트 추가 공급에 대해서는 반대 49.2%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찬성은 38.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2.6%였다.

아파트 공급 확대 반대 이유로는 인구 증가의 정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37.2%)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택과 공간, 역사를 활용하는 도시 재생을 더 선호

(35.5%)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광주시가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에 나선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이 58%로, 반대(42%) 보다 많았다.

광주시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0층,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40층으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층수 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는 화재 재난에 취약하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존 인프라 과부하로 인한 불편 초래'(23.9%),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음'(21.9%)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가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1인 가구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49%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월세나 주거비 보조(19.3%) ▲주택 구입자금 대출(15.3%) 순이었다.

1인 가구가 지향하는 가족형태는 '지금처럼 1인 가구로 살겠다'는 응답자가 51.8%로 가장 많았다. 이는 향후에도 1인 가구의 구성 비율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결혼 등을 통해 가족을 이루겠다'는 응답자는 25.1%였다.

향후 주거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49%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수급 조절을 꼽았다.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수 주택 공급'(24.1%), '전세값 안정'(15.5%) 등의 순이었다.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이유에 대해서는 출·퇴근과 자녀의 통학 편리성(23.9%)이 우선이었고, 이어 학교·학원 등 교육환경 접근 용이성이 21.4%였다.

이밖에 버스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 편리성이 17.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의회가 전문기관인 한국정책연구원에게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광주 20세 이상 503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으로 여론 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를 제안한 박미정 시의원은 "시민들께서 존귀한 의견이 향후 광주시 주거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고 시책 추진사항을 면밀히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독립운동 미서훈자 본격 발굴 전남도, 서훈 신청 용역 보고회

전남도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기록이 현존하지 않고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아직까지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10개월 동안 3·1운동 관련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전남도 행정구역에 대상으로 하고, 전남 출신으로 다른 지역에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된다.

일제 강점기 문헌, 범죄인 명부, 독립운동 기록, 제적부 등으로 미서훈자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전수 조사 및 공적조사 작성, 국가보훈처 서훈 신청 순으로 진행한다.

독립운동 유가족이 고령화함에 따라 조속히 미서훈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는 1895년 한말 의병부터 1945년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미서훈자 발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독립운동에 함께한 분들은 많으나 실제 서훈받은 분은 그리 많지 않다. 국가기록원 집행원부에 따르면 도내 의병과 3·1운동 관련 미서훈자는 2000여 명에 이른다. 2018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말 의병만 96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 누리집, 전남새마을서신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용역 문의는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사교류 우수기관 중앙 정부와 소통·협력 기여

광주시가 인사교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정부 인사교류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인사교류 규모를 확대하고, 문화기반 조성 역량을 강화하려고 과장급 교류도 추진했다.

중앙 정부와 소통, 협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전시, 경남도와 함께 수상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현재 행정안전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전남·전북, 자치구 등 모두 12개 직위의 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중앙 부처와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한 자치구와 인사교류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용안정 취업지원센터 개소식 24일 오후 고용안정추진단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안정 취업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참석자들이 헌반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수목 웹드라마 '네 곁에 묵묵히' 오늘 으뜸전남티브서 첫 방영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수목 웹 드라마 '네 곁에 묵묵히'가 25일 오후 7시 전남도 공식 유튜브인 으뜸전남티브서에서 첫 회를 방영한다.

24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에 따르면 '네 곁에 묵묵히'는 목포, 진도의 유명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한 6부작의 수목비엔날레 홍보 드라마다. 9월 10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 방영한다.

주요 내용은 마음속 깊은 상처를 갖고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그림에 전념하는 천재 청년화가의 상처 치유 과정으로,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대표 작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그렸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에 지친 도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수목 작품을 제작해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뉴미디어 홍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펼쳐지는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목포·진도 주전시관 이외에도 여수, 광양, 나주, 광주 특별전시관과 여수, 구례, 강진 등 9개 시군 기념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남도 전역에 수목 축제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서진건설, 어등산개발 협상 결렬 앞두고 책임공방

시, 의견 수용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등 후속 절차 서진 "시, 우월적 지위 통해 일방적 통지" 사업 추진 의지 여전

지역 대표 현안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온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협상결렬을 앞두고 책임공방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서진건설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광주 시정에 적극 협력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협상결렬을 내세워 서진 측이 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양측이 광주발전을 위한 사업 정상화 의지보다는 법적 소송에 대비해 '명분 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광주시와 서진건설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은 이날 광주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총사업비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대해 광주시와 논의한 뒤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법원 판결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하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광주시는 총사업비 범위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입장과 함께 우월적 지위를 통해 (협상) 종결 통지를 했다"며 "(서진건설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총액의 10%를 납부해야 하는 협약 이행 보증금 산출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놓고 각각 4826억원(이행보증금 482억원)과 193억원(19억여원)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약속 했지만, 이마

저도 해석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결국 광주시는 "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며 서진건설에 이날까지 최종 회신을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일단 이날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 협의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광주시는 서진측이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등 협상결렬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다만 서진건설이 지금이라도 시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상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공공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